

## 중앙아시아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김 세 중  
(연구 2부 연구원)

### 1. 목 적

이 글은 1993년 7월 9일(금)부터 7월 26일(월)까지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서정목 연구 2부장과 함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시에 파견되어 활동한 경험을 유사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할 연구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다. 2에는 출장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서술하고 3부터는 이 연수를 마치고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 있던 내용을 요약하였다.

### 2. 일 정

7월 9일(금) 10시 45분 김포 공항에서 SU 008편으로 출국하였다. 10시간을 비행하여 모스크바 시간으로 4시 15분경 모스크바 세레메체보 공항에 착륙하였다.(모스크바 한국 학교 여영호 선생 마중)

7월 10일(토) 고리키 거리에 있는 국영 여행사인 인투리스트로 가서 타슈켄트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뒤 시내 관광에 나섰다. 크렘린과 붉은 광장, 성바실리 광장을 둘러보고 모스크바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탑인 오스탄키노에 올라가서 시가지 전체를 조망하였다. 크렘린 근처에서 시내 지하철을 두 구간 타 보고 난 뒤 레닌 언덕 부근의 모스크바 대학을 거쳐 도모제도보 공항으로 갔다.

7월 11일(일) 도모체도보 공항에서 한밤중인 00시 50분에 타슈켄트행 우즈베키스탄항공기를 탔다. 약 5시간 걸려 타슈켄트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에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안재식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원장, 동포 교사인 김인자 선생,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의 직원인 정비탈리 마중) 2주일간의 숙소로 예정된 김인자 선생택에서 짐을 풀 뒤 안재식 원장과 함께 과거 전 소련 내에서 모범 콜호스로 유명했던 폴리토젤로 가서 고려인 회장, 부회장과 만나 점심 식사를 했다.

7월 12일(월) 연수회 개강식을 하고 첫 날 수업을 했다. 약 40명의 교사가 참석하였다.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경어법;서정목 부장. 한글의 명칭, 자모의 이름과 차례;김세중 연구원) 한국 교육원 사무실에서 전화로 서울의 원장님께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고했다.

7월 13일(화) 연수 강의를 하였다.(시제;서정목 부장, 한글 맞춤법의 기본 정신과 두음 법칙;김세중 연구원) 수업이 끝나고 동포 교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의 학제에 대해 자세히 답하였다.

7월 14일(수) 연수 강의를 하였다.(조사;서정목 부장, 사이시옷과 기타;김세중 연구원) 구 시가지로 가서 우즈베크의 토속 음식인 샤흐리크로 점심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와 김인자 선생의 시아버지인 남인철 선생으로부터 그의 일대기를 듣고 밤에는 김인자 선생의 친구인 미자 씨로부터 그녀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7월 15일(목) 연수 강의를 하였다.(어말 어미;서정목 부장, 표준 발음법;김세중 연구원) 한국 교육원 근처에서 책방을 처음으로 찾아내어 180루블을 주고 책을 대여섯 권을 샀다. 오후에는 강의가 끝난 뒤 세 동포 교사에게 도서실에서 별도 과외 수업을 했다.

7월 16일(금) 연수 강의를 하였다.(선어말 어미;서정목 부장, 표준어 규정;김세중 연구원) 한국 교육원에서 가까운 전화국으로 가서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4,800루블에 4분 통화했다. 시내의 가장 큰 백화점인 춤 근처에서 책방을 발견했다.

7월 17일(토) 연수 교육이 없는 날이었으므로 오전에는 휴식하고 오후에는 시내로 나와 책방을 둘러보고 시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7월 18일(일) 아침 일찍 유명한 회교 유적지인 사마르칸트로 떠났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버스로 5시간 가까이 걸렸다. 실크로드상의 한 거점인 사마르칸트에는 회교 사원이 여러 개 있었다. 사마르칸트 중앙 시장에서는 고려인 과일 파는 아주머니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고려말을 더듬더듬 하는 정도였다. 수도인 타슈켄트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밤 9시경 타슈켄트에 돌아왔다.

7월 19일(월) 연수 강의를 하였다.(우리 말의 예절;서정목 부장, 표준어 규정;김세중 연구원) 강의가 끝나고 안재식 한국 교육원장의 주선으로 쿨룩에 있는 고려인 노인 회관을 방문하여 20여 명의 고려인 노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바람에 오히려 충분한 얘기도 못하고 녹음도 별로 하지 못하여서 무척 아쉬웠다. 가장 큰 백화점인 춤 부근의 서점에 가서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 작품 등을 구입하였다.

7월 20일(화) 연수 강의를 하였다.(우리 말의 예절;서정목 부장, 표준어 규정;김세중 연구원) 오후에는 타슈켄트를 조망할 수 있는 티브이 탑에 올랐다. 전망은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사방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었다.

7월 21일(수) 연수 강의를 하였다.(우리 말과 글이 걸어온 역사;서정목 부장, 표준어 규정;김세중 연구원) 서울에서 발송한 교재가 이제서야 도착되어 책을 교사들에게 나눠 주었다. 수량이 연수에 참가한 교사 수만큼 되지 않아 나누는 데 애를 먹었다. 저녁에는 안재식 원장 주축로 '조선' 식당에서 흥겨운 만찬이 베풀어졌다. 모두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7월 22일(목) 연수 강의를 하였다.(우리 말과 글의 걸어온 역사;서정목 부장, 외래어 표기법;김세중 연구원) 수업이 끝나고 연수회 수료식이 있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나눠 준 책에 서명을 해 주고 명함을 나눠 주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7월 23일(금) 고려인들이 많이 있다는 쿨룩의 시장에 갔다. 쿨룩은 유명한 시장으로 타슈켄트 주변의 모든 콜호스에서 거둔 농산물을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곳이었다. 우리의 재래식 시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들은 대로 이곳에서 고려인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정비탈리와 아사비 콜호스를 방문하였다. 대가족인 한 고려인 가정을 방문하여 고려인들이 사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7월 24일(토) 타슈켄트 시의 한 고려인 구역회 회장인 김병걸 선생이 찾아와서 그분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점심 때는 드미트로프 콜호스로 정비탈리의 고향 집을 방문하였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타슈켄트 시내로 황급히 돌아와 타슈켄트 공항으로 갔다. 밤 10시 무렵 모스크바의 도모제도보 공항에 도착했다.

7월 25일(일) 시내 나들이에 나섰다. 고리키 거리에 있는 책방 겸 선물 가게에서 엽서 등 선물을 구입하였다. 여영호 선생 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세레메체보 공항으로 갔다. 17시 45분 KE 914편은 세레메체보 공항을 이륙했다.

7월 26일(월) 아침 9시 45분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 3. 해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목적

현지 동포들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 목사, 현지 상사 주재원, 한국에서 온 여행객 등을 통해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느끼고 있으며 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지 묻는다. 50만에 가까운 옛 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받아들일 처지에 있지 않은 본국 정부로서는 동포들이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현지 토착 민족인 우즈베크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들이 우즈베크어를 시급히 배워야 함을 일깨워 주고 조국은 그들을 불러들일 형편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동포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모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각종 교류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4. 동포 사회의 성격과 한국어 사용 실태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약 2,000만 명인데 동포는 약 17만 명이다. 타슈켄트 시내에는 약 6~7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다. 원동에서 1937년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징용으로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 북한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조상들이 1860년대부터 이미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식은 극히 미미하다. 연수회에 참석한 교사들 중에서 안중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골인 콜호스(집단 농장)에서는 일부 가정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써 왔지만 전혀 쓰지 않는 가정이 더 많다. 도회지에서는 가정에서도 모두 러시아어만 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집안에서 러시아어로 “파파!” 하고 부른다. 러시아어의 사용만이 살 길이었던 옛 소련 체제 아래에서 조국과 절연된 채 살아온 동포들에게는 한국어는 50대 이후 세대에 있어서도 희미하게만 남아 있을 뿐이었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거의 전수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옛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한국의 북방 외교의 결실에 따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한국 대사관이 상주하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교육부 소속의 한국 교육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민간 경제 투자가 활발해져 우즈베

키스탄 공화국에 대우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고 현대 자동차는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2~3 년 전부터 현지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져서 11학년제 학교의 정규 수업이 끝나고 별도 과목 시간에 희망자에 한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타슈켄트 시내에 20여개 생겨났다. 수강 학생은 대부분 동포 자제들이고 교사는 현지 동포 교사이거나 한국어에 자신 있는 동포 자원자들이다.

이번 연수의 수강자 40명을 분석해 보면 13명이 남자, 나머지가 여자이다. 남자는 대부분이 55세 이후였고 20대 초반이 2명 있었다. 여성은 20대 4명 외에는 대체로 40대와 5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부는 타슈켄트에서 활동 중인 광주 한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

### 5.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동포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은 현지 동포들 중에서 우수한 한국어 교사를 많이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포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현지 동포들은 누구나 러시아어를 잘 구사한다. 따라서 현지 동포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 교육받은 사람이 동포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를 매개 언어로 하여 한국어를 가르칠 때 많은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다. 현지 동포들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방법은 현지 동포들 가운데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하여 한국의 대학이나 관련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방법과 러시아어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국내의 국어학 내지 국어 교육 전공자를 현지 한국 교육원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현지 동포 교사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 6. 교사 및 교수 파견의 문제점

타슈켄트 시내에는 현재 한국 교육원 외에 광주 한글 학교가 운용되고 있고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교육원은 원장 한 사람만 파견되어 있어서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 한글 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운용하는 학교가 아니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로서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 니자미 사범대학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학으로서 교수진에 우리 나라의 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평양에서 파견된 북한 학자나 동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국어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지 않

고 민간에서 한국어 교육 요원을 파견하여 동포들을 교육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7. 교재 개발 및 서적 보급

우리 나라에서 만든 러시아어로 설명이 된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 현지 동포와 한 우즈베크 교수는 러시아어 설명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고 어색한 곳이 많다고 지적을 하였다. 현지에는 러시아어가 모국어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제작된 교재에 나타난 러시아어의 오류를 모두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교재를 만들 때에는 동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지 동포들은 좋은 국어 사전의 보급을 갈망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포켓용 국어 사전은 이제 막 한국어를 익히는 동포들에게는 지나치게 방대하며 불필요하고 어려운 단어들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을 위한 한로·노한 사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8. 결 론

현지의 정황은 급변하고 있다. 물가는 최근 2년 내내 급격히 치솟아 왔으며 월급도 꾸준히 올라 왔으나 물가의 상승 속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크 민족주의가 드세짐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점점 러시아 땅으로 떠나가고 있으며 돌아갈 마땅한 땅이 없어 남아 있는 우리 동포들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우즈베크인이나 러시아인에 밀려 중요한 자리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 소련의 공화국들이 2년 전 독립을 했으나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동포들은 옛 소련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발급받게 될 것이다. 이 때 소수 민족으로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민권을 보장받게 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될지에 따라서 많은 동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살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땅을 떠나 다른 어느 지역으로든 떠나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 한국어 전문가를 옛 소련 지역에 파견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동포들을 도와 주는 것은 다른 기관이 맡아 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

- 2주간의 파견 교육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주하면서 현지 동포 교사들을 교육함으로써만이 단시일 안에 많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상주가 어렵다면 적어도 교육 기간을 4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어 교육만이 전부는 아니고 현지 방언 조사도 파견의 중요한 의의인 만큼, 2인이 파견될 경우 첫 2주는 gaps, 나머지 2주는 올이 하도록 하여, 강의가 없는 동안은 동포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 방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 현지 동포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 와 보지 않더라도 한국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한국을 소개하는 비디오 테이프, 한국 개설서를 보급해야 한다. 한국 지도를 다량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 국어 사전을 비롯해서 좋은 국어 문장으로 씌어진 문학 작품, 동화, 그리고 한국 경제, 한국 역사에 관한 책자를 보급해야 한다. 책자 보급의 일환으로 국어연구원의 새국어생활을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한글 타자기와 컴퓨터를 한글을 과외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 문자 생활의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파견자는 현지 지리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한 뒤에 현지에 가야 동포들이 들려주는 역사와 현지 사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약간의 노어 회화를 습득해 갈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